형제 · 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이 현 정*
Lee, Hyun-Jung
조 성 연**
Cho, Songy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number, birth order, and sibling relation types. The subjects were 489 three- to five-year old boys and girls enrolled in 4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struments were the 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 and a questionnaire for the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Tukey test and Cronbach α.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siblings' soci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only children, first-bor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the later born, and older brother's soci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Key words :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형제 · 자매관계(sibling relationship), 형제 · 자매관계유형(sibling relation type)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9일
* 다예린 유치원 교사, E-mail : meminpo@hanmail.net
**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I. 서 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60년대 말 이후 실시되어온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하여 가구당 출산율도 1999년 현재 1.42명으로 감소되었다(통계청, 2000). 이는 가족내 가구원수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Dunn(1983)은 미국과 영국에서 부모, 조부모, 친구 등의 관계망 중 80%가 형제·자매관계라고 지적하였으며, Adams(1981)는 형제·자매관계를 '일생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설명하였다. 즉 형제·자매는 성취를 위한 자극대상인 동시에 모델의 역할도 행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더라고 형제·자매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부모 이외의 최초의 타인 관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

Stoneman과 Brody(1993)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는 우정의 근원이며 지지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Dunn(1983)은 과거의 선행자료에서 형제·자매는 경쟁관계로 인식되었지만 현 선행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경쟁은 드물고 형제·자매의 상호작용이 가족구조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민감성, 역할수용 등이 형제·자매관계를 통해 더 잘 발달된다고 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지위와 지적, 성취적, 인성적 변인 등과 관련된 연구들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형제·자매관계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들의 관련성이나 영향 등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형제·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O'Malley(1977)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능력과 관계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발달을 나타내는 인간의 통합된 행동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란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형제·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현대의 자녀수 감소로 인한 외동아의 영향, 형제·자매 유무와 형제·자매의 성별 구성, 출생순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보고 된 연구들은 형제·자매간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형제·자매의 유무와 관련하여 외동아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거나(양동두, 1993; 이기우, 이성진, 1986), 반대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외동아에 비해 더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들(송성옥, 1997; 이현주, 2000; Abramovitch, Corter & Pepler, 1982; Baskett & Johnson, 1982)도 있다. 형제·자매수와 관련하여 Coopersmith(1976), Hoelter와 Harper(1987) 등은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

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성연과 도현심(1993), 송민경(2000) 등의 연구에서는 형제 · 자매 수가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사회성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형제 · 자매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김상희(1990), 최은숙(1992) 등의 연구에서는 동생이 의사소통이나 모방행동, 접근행동과 대화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이형덕(2000), Abramovitch, Corter와 Pepler(1986), Kramer와 Gottman(1992), Snow(1981) 등은 손위 아동이 또래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동생보다 사회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형제 · 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형제 · 자매의 성별구성유형에 대해 연구된 것은 흔치 않다. 형제 · 자매의 성별관계유형은 형제 · 자매관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유형과 태도 및 형제 · 자매의 영향력 정도와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형제 · 자매 유무, 출생순위 및 관계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1. 형제 · 자매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2. 형제 · 자매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3. 형제 · 자매의 관계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4곳의 유치원을 유의표집하여 그곳의 만 3~5세 아동 489명(남아 250명, 여아 239명)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 아동들에 대한 자료는 아동이 속한 유치원의 담임교사 34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표집된 아동의 평균연령은 3세의 경우 3년 6개월, 4세는 4년 6개월, 5세는 5년 3개월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과 성별 분포 및 가족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부모 모두 연령에서는 31~40세(부 79.1%, 모 87.1%),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부 72.4%, 모 69.9%)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유

〈표 1〉 연구대상 아동과 가족의 특성

변인	구분	아동 빈도(%)	변인	구분	아버지 빈도(%)	어머니 빈도(%)
연령	3세	129(26.4)	연령	30세 미만	3(0.6)	38(7.8)
	4세	209(42.7)		31~40세	387(79.1)	426(87.1)
	5세	151(30.9)		41세 이상	99(20.2)	25(5.1)
성	남	250(51.1)	교육수준	고졸	45(9.2)	114(23.3)
	여	239(48.9)		전문대졸	17(3.5)	17(3.5)
형제 · 자매 수	1	89(18.2)		대졸	354(72.4)	342(69.9)
	2	368(75.3)		대학원졸	73(14.9)	16(3.3)
	3	32(6.5)				
형제 · 자매 관계 유형	외동아	89(19.5)	직업유형	사무직	290(59.3)	37(7.5)
	형제	106(23.2)		전문직	78(15.9)	44(9.0)
	자매	68(14.9)		판매직	61(12.5)	17(3.5)
	남매	194(42.4)		서비스직	39(7.9)	7(1.4)
출생 순위	첫째아	196(40.1)		기술직	16(3.3)	0(0.0)
	둘째아	204(41.7)		전업주부/무직	5(1.0)	384(78.5)
	외동아	89(18.2)				

형에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비취업 상태(78.5%)였으며, 아버지들은 주로 사무직(59.3%)에 종사하였다. 표집된 연구대상의 형제·자매수는 둘인 경우(75.3%)가, 형제·자매의 성별 관계유형에서는 남매관계(42.4%)가, 출생순위에서는 둘째아(41.7%)가 가장 많았다. 또한 형제·자매의 성별구성에서 연구대상수가 457명인 것은 형제·자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형제·자매수가 3명이상인 32명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Levine, Elzey와 Lewis(1969)가 30문항으로 제작한 California 사회적 능력 척도(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 : 이하 CPSCS라 칭함)를 이윤선(1998)의 연구에서 27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PSCS는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며, 4개 하위영역의 1~4점의 4단계 기술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하위영역은 아동이 놀이실 내에서 보여주는 대인행동(11문항), 활동참여도(7문항), 지시 따르기(5문항), 일과 적응(4문항)이다. 이 척도는 27~108점의 점수 범위를 이루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총점에 대한 Cronbach α는 .94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인행동이 .91, 활동참여도가 .85, 지시 따르기는 .81, 일과 적응이 .70이었다. 일과 적응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낮은 이유는 문항수가 적어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가정환경질문지

가정환경질문지는 아동의 가족특성 및 형제·자매의 성별관계유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에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형제·자매의 수, 성별관계, 출생순위 등이 조사되었으며, 해당 유치원에 비치되어 있는 가정환경조사서를 참고하여 교사들에 의해 기록·수집되었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CPSCS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6월 23일에 천안시 소재의 1개 유치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약간의 용어 수정만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1년 9월 13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표집된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각 600부씩의 CPSCS와 가정환경질문지를 배부함으로써 실시되었다. 배부된 CPSCS와 가정환경질문지는 각 496부씩이 회수되어 약 83%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이중 미진하게 평정된 7부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각각 489부만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win 10.0)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CPSCS는 하위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정환경질문지는 각 변인별로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된 후 연구문제에 따라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이 실시되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가 산출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형제 · 자매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형제 · 자매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형제 · 자매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N=489)

	유(n=400)		무(n=89)		F
	M	SD	M	SD	
대인행동	35.11	7.10	32.83	8.07	4.119*
활동참여도	20.39	4.55	18.56	5.03	6.462*
지시 따르기	15.28	3.46	14.29	3.86	1.815
일과 적응	14.20	1.90	13.73	2.00	1.578
총점	84.98	14.52	79.42	16.46	5.307*

*p<.05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제 · 자매의 유무에 따라 CPSCS 총점과 하위영역 중 대인행동과 활동참여도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산출되었다. 즉 외동아보다 형제 · 자매가 있는 아동이 이들 영역에서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냈다.

2. 형제 · 자매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형제 · 자매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 CPSCS 총점과 하위영역 중 활동참여도에서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형제 · 자매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N=489)

	외동아 (n=89)		첫째아 (n=196)		둘째아 (n=204)		F
	M	SD	M	SD	M	SD	
대인행동	32.83	8.07	34.92	7.17	35.29	7.05	2.862
활동참여도	18.56a	5.03	20.60b	4.36	20.18	4.73	3.581*
지시 따르기	14.29	3.86	15.45	3.40	15.12	3.51	1.129
일과 적응	13.73	2.00	14.35	1.70	14.05	2.06	1.499
총점	79.42a	16.46	85.33b	14.00	84.64	15.02	3.068*

*p<.0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평균에서 첫째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아도 외동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전체 사회적 능력과 활동참여도에 있어서 첫째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사후검증한 결과는 외동아와 첫째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형제 · 자매의 관계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형제 · 자매의 관계유형을 형제관계, 자매관계, 오빠 · 여동생과 누나 · 남동생의 남매관계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이들 간 사회적

〈표 4〉 형제 · 자매관계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형(n=57)		동생(n=59)		F	언니(n=37)		동생(n=41)		F
	M	SD	M	SD		M	SD	M	SD	
대인행동	32.47	7.85	31.71	7.85	.748	38.65	5.57	38.85	4.89	.214
활동참여도	19.25	499	20.71	4.67	1.483	22.08	4.12	21.20	4.52	2.338
지시 따르기	14.18	3.45	15.17	3.58	.986	16.86	2.85	16.71	3.19	.501
일과 적응	13.25	2.53	14.19	1.61	4.265 *	14.78	1.49	14.49	1.79	2.013
총점	79.14	17.01	81.78	15.52	.174	92.38	11.95	91.24	12.17	1.313
	오빠(n=55)		여동생(n=41)		F	누나(n=60)		남동생(n=65)		F
	M	SD	M	SD		M	SD	M	SD	
대인행동	36.96	6.45	33.63	6.48	8.274**	34.33	6.66	36.63	6.57	3.866
활동참여도	20.58	4.67	20.39	3.38	.197	19.50	4.74	20.40	4.38	1.461
지시 따르기	15.62	3.58	14.98	3.20	1.808	14.48	3.51	15.46	3.26	3.354
일과 적응	14.53	1.80	14.34	1.49	.643	13.85	2.13	14.54	1.80	4.462 *
총점	87.69	13.92	83.34	11.59	4.181*	82.17	14.13	87.03	13.54	4.407 *

*p<.05 **p<.01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매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 · 자매관계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형제관계에서는 하위영역 중 일과 적응에서만 의의 있는 차이가 산출됨으로써 동생이 형보다 일과에 대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관계는 대인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언니가 동생보다 평균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의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남매관계 중 오빠 · 여동생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총점과 대인행동에서 오빠가 여동생에 비해 의의 있게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누나 · 남동생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총점과 일과 적응에서 남동생이 누나에 비해 의의 있게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형제 · 자매의 유무, 출생순위, 형제 · 자매관계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표집된 연구대상이 3, 4, 5세로서 연령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산출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 · 자매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총점과 하위영역 중 대인행동과 활동참여도에서 의의 있는 차이가 산출되었다. 즉 외동아보다 형제 · 자매가 있는 아동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이 더 높고, 하위요인 중 대인행동과 활동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

동아의 경우 성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는 많을 수 있지만 형제 · 자매가 없기 때문에 형제 · 자매를 통해 또래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미리 배우고 접촉하는 기회가 더 적고, 대인간의 행동이나 이들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 적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형제 · 자매가 있는 아동이 외동아보다 친사회적인 집단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결과를 산출하였던 김병태(1997), 송성옥(1997), Abramovitch, Corter와 Pepler(1982), Baskett과 Johnson(1982), Jiao와 Ji(1986) 등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동아가 형제 · 자매가 있는 아동보다 사교적이며, 협동성과 대인 적응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던 김상희(1990), 김숙경(1989), 양동두(1993), 이기우, 이성진(1986), 이현주(2000), Falbo(1992), Falbo와 Polit(1986)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형제 · 자매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총점과 하위 영역 중 활동참여도에서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은 첫째아, 둘째아, 외동아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아가 또래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둘째아 이하의 형제 · 자매들보다 더 사회성이 높다는 이형덕(2000), Abramovitch, Corter와 Pepler(1986), Dunn, Stocker와 Plomin(1989), Kramer와 Gottman (1992), Snow, Jacklin과 Maccoby(1981), Stoneman 과 Brody(1993)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첫째아인 경우 성인, 곧 부모가 그 이후의 형제 · 자매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행동을 강화해 주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둘째 이후의 형제 · 자매는 신체적으로 지배적인 손위 형제에게서 느꼈던 불안한 경험으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소심하고 위축되게 행동함으로써 첫째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낮을 수 있으나 형제 · 자매가 없는 외동아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형제 · 자매수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형제 · 자매 수가 많을수록 그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행동이나 기술에 대한 모방과 협동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 · 자매 수가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으며, 대인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던 박성연, 도현심(1993), 송민경(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던 송나리, 박성연(1993)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셋째, 형제 · 자매의 관계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자매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유형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산출되었다. 먼저 형제관계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총점과 대인행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의 평균에서 동생이 형보다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영역 중 일과 적응에서만 의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생이 손위 형제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다는 김상희(1990), 최은숙(1992)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형제들은 공격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활발한 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형은 동생보다 모든 놀이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숙재, 2000 : 80-83). 따라서 동생은 많은 경우 형에게 양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에 따르면서 활동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어 동생은 형보다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

라 사회적 능력을 더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총점과 대인행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언니가 동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의 관계유형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형제·자매관계 중 사회적 능력을 가장 잘 발달시켜줄 수 있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매들끼리인 경우 놀이의 형태가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등의 역할놀이이거나 형제관계보다는 다소 정적이어서 그들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숙재, 2000 : 80-83). 또한 자매관계에서는 양보하기나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으로써 언니의 경우에 지배적인 성향보다는 양보하기, 도와주기 등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동생을 더 잘 감싸주고 보살펴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위가 여아인 아동들이 남아인 아동들보다 사회성이 더 높다는 김미화(1997), 김상회(1990), 박성연, 도현심(1993), 송민경(2000), Sutton-smith와 Rosenberg(1970) 등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된다.

남매관계 중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유형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총점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오빠가 여동생보다 약간씩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중 총점과 하위영역 중 대인행동에서만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오빠가 여동생보다 대인행동에서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빠를 둔 여아가 더 감정적이고 고집이 세며 소유욕도 강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던 연구결과(임말수, 김경옥, 김영선, 1997 : 164-165), 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빠가 있는 여아의 경우 고집이 세어 대인행동에서 다소 무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매관계 중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유형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총점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동생이 누나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 중 총점과 일과 적응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위가 누나일 때 남동생보다 누나가 사회성이 더 높다는 김미화(1997), 김상회(1990), 박성연, 도현심(1993), 송민경(2000), Sutton-smith와 Rosenberg(197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형과 달리 누나의 경우, 손아래 동생에게 양보를 잘하고 더 양육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생으로 하여금 더 친사회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제·자매의 관계유형에서 산출된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제·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남아의 경우에는 남동생이, 여아의 경우에는 언니가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사회적 능력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 유형 전체의 사회적 능력 총점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자매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형제관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격성이나 지배적 성향이 강한 남아가 있는 형제나 남매집단에 비해 여아만이 있는 자매 집단에서 친사회적 성향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매관계로 구성되었을 때 경쟁심이 낮고 사회성, 자율성은 높게 나타났던 홍연림(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동성의 형제·자매가 혼성의 형제·자매보다 더 친사회적이라는 Brody, Stoneman과 MacKinnon(1982), Dunn(1983)과 Minnett, Vandell과 Santrock (1983)의 연구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 · 자매가 있으면서 형제 · 자매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다.

둘째, 첫째아의 사회적 능력이 둘째아보다 더 높다.

셋째, 형제관계에서는 형, 남매관계에서는 남동생과 오빠가, 자매관계에서는 언니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다. 또한 자매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높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 · 자매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물리적 · 인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한 단순한 상황적 요인 외에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과정이 함께 고려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교사평정뿐만 아니라 관찰과 면접, 부모에 의한 평정 등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선정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지도방법, 교육철학, 교사의 교육경력 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미화(1997).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병태(1997).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효과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상희(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숙경(1989). 외동아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 도현심(1993). 성, 형제 수, 출생순위 및 성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8.

송민경(2000). 형제 · 자매의 구성변인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도덕 판단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성옥(1997).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동두(1993). 형제수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우 · 이성진(1986).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 대한가족협회.

이숙재(2000). 아동을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이윤선(1998). 아동의 상상놀이 수준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해(1997).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난이도 지각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17*(2), 119-137.

이현주(2000). 외동아와 형제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형덕(2000). 아동의 성, 출생순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말수 · 김경옥 · 김영선(1997). 아동기 발달. 서울 : 양서원.

최은숙(1992). 형제간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행동.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형성(1992).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00). http : //www.nso.go.kr/report/data/sswo2001. htm#3. 여성의 취업.

홍연림(2000). 형제지위변인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ramovitch, R., Corter, C., & Pepler, D. J. (1981).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4*(4), 1344-1347.

Adams, V. (1981). The sibling bond. In H. E. Fitzgerald & T. H. Carr(Eds.), *Human Development*(pp. 228-234). MI :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Baskett, L. M. & Johnson, S. M. (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 with parents versus siblings :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43-650.

Brody, G., Stoneman, Z., & MacKinnon, C. (1982). Child temperaments,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4-362.

Coopersmith, S. (1976).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NY : W.H. Freeman.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4), 787-811.

Dunn, J., Stocker, C.,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3), 715-727.

Falbo, T. (1992). Social norms and the one-child family :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 Hillsdale, NJ : Erlbaum.

Falbo, T., & Polit, D. F.(1986).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child literature :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ical Bulletin, 100,* 176-189.

Hoelter, J., & Harper, L. (1987). Structural interpersonal family influence on adolescent self-concep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129-139.

Jiao, S., & Ji, G.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Kramer, L., & Gottman, J. M. (1992). Becoming a Sibling : "What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85-699.

Minnett, A. M., Vandell, D. L., & Santrock, J. W. (1983). The effects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4), 1064-1072.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 Palmer Quarterly, 23*(10), 29-44.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 (1981). Birth 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 589-595.

Stoneman, Z., & Brody, G. H. (1993). Sibling temperaments, conflict, warmth and role asymmetry. *Child Development, 64*(6), 1786-1800.

Sutton-Smith, B., & Rosenberg, B. G. (1970). *The sibling.*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